

2017년 사우회 정기총회 마쳐



세한 보고가 회원들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보고에 따르면, 경조비, 동호회 활동비, 일반 관리비, 단합대회 경비 등 올해 예산은 2억7천4백36만9천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총회에서는 2016년 결산승인, 2017예산안 승인, 김수량 전 회장의 고문 추대 건 등이 이의 없이 통과 됐다. 사무처에서는 식사와 함께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여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금년도 사우회 정기총회가 2월 24일 오전 종로2가 파노라마뷔페에서 열렸다. 회원 1,447명 중 165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이연현 사우회장은 ‘올해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회원들이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하 감사의 감사 보고와 이용우 사무처장의 2016년 업무 보고에 이어 사우회의 재정상태 등에 대한 신대근 부회장의 상



MBC 새 사장에 김장겸 前 보도본부장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2월 23일 MBC 사장 후보 3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뒤 투표를 통해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신임 MBC 사장으로 내정했고 이어서 열린 주총을 통해 사장으로 확정했다.

김장겸 신임 사장은 마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뒤 1987년 MBC 보도국에 입사해 런던특파원, 정치부장, 보도국장 등을 지냈다.

김장겸 신임 사장 취임식이 2월

28일 공개홀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 사장은 “방송내용의 사실 여부를 마지막까지 검증해 시청자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방송은 품격을 갖게 된다”, “사실과 진실 앞에 더욱 겸손하고 사실을 신중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또 “과거에 매몰된 진영 논리로 미래를 헤쳐 나갈 해법을 찾을 수 없다. 어려운 때일수록 새로운 비전을 갖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 문화방송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건전한 웃음이 있는 콘텐츠회사로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MBC 새 임원진 인사

부사장 백종문	기획본부장 최기화	편성제작본부장 김도인
보도본부장 오정환	경영본부장 이은우	드라마본부장 이주환
예능본부장 이흥우	방송인프라본부장 김성근	미디어사업본부장 윤동렬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권재홍	MBC플러스 부사장 정호식	
MBC플러스 이사 김영삼	MBC씨앤아이 부사장 성보영	
MBC씨앤아이 이사 김상진	iMBC 대표이사 사장 정용준	
iMBC 이사 전복용	MBC 아트 이사 이찬규	
MBC플레이비 대표이사 사장 노혁진	MBC플레이비 이사 홍성호	
MBC아메리카 대표이사 사장 민완식	MBC아카데미 대표이사 사장 김 엽	

사우회, 세란병원과 협력협약 체결

사우회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란병원과 협력병원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사우회원들이 이용할 경우 할인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연현 사우회장과 홍광표 세란병원장은 3월 6일 오전 ‘상호 협력병원

지정 및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우회원들이 세란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설 종합 건강 검진센터에서 종합 검진을 받을 경우 뇌 MRI와 수면 대장 내

시경 등 특수검사를 포함한 종합 검진을 30만원에 제공받도록 합의했다. 또한 사우회 회원 자녀 등 가족들이 부설 산후 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된다. 세란병원은 서울 종로구 통일로 256 번지(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1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다.



김장겸 사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사우회



2017 상반기 행사 일정 일부 확정

등산 4/26(수), 낚시 5/12(금),
단합대회 5/18(목), 바둑 6/7(수)

2017년도 상반기 각 동호회 행사가 4월 26일 등산대회를 시작으로 6월 초순까지 시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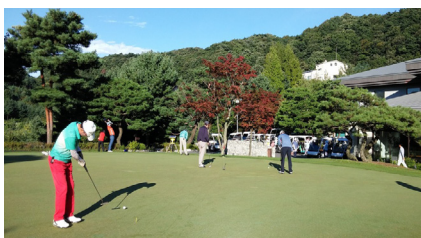
등산대회는 4월 26일(수) 오전 10시 우이동 아카데미하우스 앞에서 출발해 솔밭공원을 거쳐 우이동 종점까지의 둘레길 코스에서 두 시간 동안 열린다. (수유역에서 1번 마을버스 이용 아카데미 하우스 종점 하차)



낚시동호회는 5월 12일(금) 오전 6시 대회를 개최하며 장소는 하루 전에 공개한다.



상반기 회장배 쟁탈 바둑대회는 6월 7일(수) 오전 9시30분부터 A,B조로 나뉘어 사우회 사무실에서 개최된다. 골프대회는 장소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회원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자연장지 분양회원에게 TV 세트 선물

사우회 협력업체인 중앙추모공원은 청명과 한식, 식목일을 맞아 자연장지나 납골당을 300만원 이상 분양받는 사우회 회원들에게 4월 한 달 동안 32인치 TV세트 한 대씩을 제공하기로 했다. 추모공원 측은 선물과 상관없이 MBC 회원

할인가 혜택 또한 추가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4월 한 달간 자연장지를 분양 받는 회원들에게는 할인혜택과 TV 세트가 동시에 제공된다. 중앙추모공원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들께서는 사무처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 중단

사우회 회원들에 대한 백내장 수술비 지원 프로그램이 3월 1일부터 중단됐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은 당초 지난

해 연말로 끝내려 했으나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연장해 왔었는데, 최근 GS안과 측 사정에 따라 중단하기로 결정됐다.

회비 수납계좌 변경

회비 수납 계좌가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사우회 거래은행인 구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에 통합됐기 때문인데, 당분간은 기존 구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해도 변경된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한편 올해부터 각종 회비가 인상·조정됐습니다.

조정된 회비 내역은 연회비 3만원, 평생회비 50만원, 입회비 5만원입니다.

어느 후배의 멋진 삶



하영석(보도)

시인 ‘이반 투르게네프’는 한 사람의 작디작은 사랑의 비밀을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피어나는 꽃의 비밀에 비유하고 있다. 꽃은 아무도 모르게 피어나 보는 이를 즐겁게 해준다. 그것으로 족하다. 굳이 자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아름답다. 사람도 그렇다. 내가 아는 MBC 후배 하나가 그런 사람이다. 그는 회사 퇴직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산 4층짜리 빌딩이 효자가 되어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그런 자신의 여유를 혼자 누리지 않고,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고, 세입자의 입장을 헤아려주는 ‘착한 주인’으로 불린다.

또한 오다가다 만나는 선, 후배를 대접하는 게 그의 일상이다. 그는 항상 옷차림이 허름하다. 평범한 근로자처럼 보이는 그가 한때 잘 나가던 ‘전직 기자’라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대부분 놀란다. 그는 언제나 검소하다.

그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험난하고 불우했다. 아버지의 바람기 때문이었다. 사업가 할아버지 덕에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한 부친은 경찰 간부였는데, 그 시대 돈 많고 힘 있는 남자가 대부분 그랬듯이 주변에 많은 여자가 있었다.

그의 모친은 갈수록 횡포가 심해지는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가게 됐고, 그도 외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외가의 성씨로 호적에 올라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가 재학 중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본가로 돌아와 아버지 성을 되찾았다.

그러나 서모의 학대와 박해에 못 이겨 중학교 때 가출도 했다. 서모가 데려온 전 남편의 아들과 중학교 한 반이 되었는데 그 녀석마저 그를 조롱하고 무시했다. 어느 날, 같은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의 결투가 있었고 상대는 목사발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서모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학교에서 그를 퇴학 처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의 외톨이 삶을 통해 다져진 그는 당돌했다. “맞습니다. 잘못했으면 퇴학처분도 달게 받아야죠. 하지만 패거리들과 함께 먼저 싸움을 걸어온 학생과 이에 맞서 싸운 학생, 어느 쪽이 나쁘니까?”라는 그의 항의가 학교당국에 받아들여져 자칫 꼬일 뻔 했던 그의 학창 생활이 이어질 수 있었고, 집안 사정을 알게 된 선생님이 오히려 그를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한다. 그 사건 후에도 여전히 그는 집안에서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지만, 이를 이겨내고 학교를 잘 마친 뒤 MBC에 입사까지 했으니, 그를 어찌 장하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그의 모진 삶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이해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웠다. 그리고 IMF외환위기 때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와 서울 강남의 신논현역 주변에 있는 4층짜리 자그마한 빌딩을 구입해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임대를 줬다. 임대업자들이 되도록 임대료를 더 받으려 하는 요즘 세태와는 달리 그는 계약 당사자가 바뀌지 않

는 한 처음 계약 당시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임대료 부담을 못 이겨 자주 바뀌는 다른 곳과 달리 안심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자기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한다.

“내가 죽거든 문상 오는 조문객들에게 부의금을 받지 말고 내가 남긴 장례금으로 그분들을 후하게 대접해 보내라.”

‘부의금을 받으면 그들이 망자를 대접하는 것이니, 자기를 애도해주는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자신의 뜻과 어긋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맨 몸으로 집을 나와 자수성가했다.

사랑보다 미움이, 화목보다는 갈등이 증폭되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평범하지만 대범한, 그러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그가 정말 팬찮아 보인다. 애증도 많고 회한도 많았을 옛적 기억을 훌훌 털어내고 지금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찬사를 보낸다.

경·조사

■ 팔순 ■

김창섭(보도)04/15 반응섭(관리)04/21 박오순(편제)05/05 진성창(대구)05/08

■ 고희 ■

김세하(감사)04/09 황종휘(관리)04/12 정상모(보도)04/16 양진수(이사)05/05
이기준(관리)05/17

■ 회갑 ■

이용석(편제)04/01 정철민(기술)04/01 윤 혁(편제)04/03 송호섭(관리)04/09
서태건(기술)04/12 이성길(관리)04/14 전형찬(관리)04/15 객재석(기술)04/24
박완주(보도)05/01 김석진(보도)05/02 김도원(보도)05/22 이병로(관리)05/30

■ 결혼 ■

정충성(보도)장녀01/21 이창우(편제)아들02/05 이태림(업무)아들02/10
박노홍(보도)장남02/11 강호진(편제)장남02/18 이상근(기술)장남02/18
곽성문(보도)차남02/18 이정준(보도)차남03/04 경진근(관리)차남03/12

■ 부음 ■

이우철(기술)부친상01/25 이장석(보도)부친상01/27 김정환(편제)장인상02/02
김순단(관리)모친상02/03 최영언(보도)상배02/04 김만섭(기술)장인상02/24
박준우(관리)장모상02/26 남상호(기술)부친상02/27 김영호(편제)상배02/27
윤능호(보도)장모상03/01 황용하(관리)모친상02/27 박노성(관리)장모상03/05
전영도(기술)장인상03/08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광민(편제) 1월 2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1965년 MBC에 입사해 라디오 제작부장, 방송심의부장 등을 역임하고 1975년 퇴직했다. 1985년부터는 태국여운공사 부회장으로 재직했다.



김성호(편제) 2월 4일 간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63세. 1982년 11월 카메라맨으로 입사하여 2012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 스튜디오 카메라 제작 분야에서 일했다.



김영우(미주) 2월 2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1961년 MBC개국 아나운서로 입사했으나 1963년 미국으로 이민. 1965년부터 50년간 미국 내 한국말 방송에 여러 가지 큰 업적을 남겼다. (사우회보 22호 참조)



배상호(대구) 1월 25일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1973년 대구MBC 총무부에 입사해 수송 업무에 종사하다가 1998년 4월 명예 퇴직했다.

회원 / 회비관리

■ 신규입회 ■

심승보(보도) 010-3741-6423 영등포구 63로 7

■ 평생회비 ■

심승보(보도)02/01

■ 연회비 ■

1월 : 김광안('17) 김기도('17) 김창욱('13~'17, 80세 납부 끝)

김홍배('14~'16) 노영일('17, 80세 납부 끝)

서정호('17) 엄기원('17) 염영수('17) 윤남현('17)

이연경('17) 이영호('17) 이재원('16~'17) 이종화('17)

정갑표('17) 조정구('16~'17) 최정식('13~'16) 최호철('16~'17)

표찬일('17) 홍신숙('17) 황수석('14~'17)

2월 : 강복주('17) 객성문('14~'16) 권혁화('17) 김대수('17) 김병문('17)

김영균('17) 김정명('17) 김정환('13~'16) 김철순('17) 김휴선('17)

김희을('17) 노성식('17) 맹석기('17) 박종진('16~'18) 양남종('17)

양홍열('17) 연규철('18) 오청엽('16~'17, 80세 납부 끝)

유흥렬('16~'17) 유흥철('17) 육수길('17) 윤상준('19)

이상림('17) 이상수('16) 이성일('12~'18, 80세 납부 끝)

이성호('17) 이하결('17) 이학규('10~'18)

인우삼('18) 임영규('16~'17) 전지웅('17~'18) 정국록('17)

정상화('17) 정영수('17) 정준모('17) 조성식('17) 차기동('17)

차인태('16~'18) 최영식('16~'17) 하광언('17) 한응희('17)

3월 : 강현식('17) 김만기('19~'21) 박복만('16~'22) 전형찬('00~'17)

차종식('17) 홍이표('17) 황용하('13~'16)

번호 / 주소 변경

편제 : 강동균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56번길 76

김관영 용인시 기흥구 고매로 43번길 32-2

김일만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487

김정욱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 2로 59번길

김종진 강서구 방화대로 34길 88

박정근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 2로 121

최영근 서초구 서운로 107

보도 : 김부영 마포구 희우정로 15

김호준 남양주시 도농로 34

이상용 강남구 도곡로 6길 11-1

이선재 전남 목포시 평화로 107번길 16

이정준 경기 파주시 적성면 윗배우니길

장효상 김포시 김포한강2로 103

최세훈 강서구 초록마을로 36길 15

기술 : 이상원 010-5058-9616

업무 : 김철순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9

윤영례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32

관리 : 김성한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77번길 55

정진민 광진구 능동로 3길 53

조복형 군포시 광정로 25-20

채애림 강동구 천호대로 162가길 11

한재수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126번길 46

대구 : 이성일 010-6637-1144

정봉일 010-2803-8433

박해선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19

전주 : 임백순 전주시 완산구 후곡길 23-11

강준오 010-5224-3261

춘천 : 임성전 강서구 양천로 30길 77

동/호/회/소/식

청죽회 새 임원 선임 : 시설부문에서 근무했던 회원들의 모임인 청죽회 새 회장에 정광조 회원이 선임됐으며 총무 김필환 회원, 감사 전종철 회원으

로 확정됐다.

청죽회는 회원이 65명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모여 회원 간 친목을 다지고 있다.

신입생 특별 우대

키자니아 부산은 1주년 행사까지
선물 꽃이 만개한 3월의 키자니아!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가 3월 다양한 혜택과 선물을 마련했다.

키자니아 서울은 초등학교 입학생을 위한 특별 혜택으로 입학생 본인은 물론, 최대 4명까지 특별 할인과 함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키자니아 이용 가능 나이가 된 2013년생 키자니아 신입생들에게도 반일권을 할인해주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OK캐시백 회원이면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OK캐시백 앱에서 키자니아 서울 이용 시 쓸 수 있는 20,000 포인트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키자니아 부산에서는 3월부터 5월 10일까지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는 '키자니아 부산 1년 이용권'을 증정하며, 이 외에도 키자니아 이용권 100명, 신세계 상품권 100명, 가족 식사권 200명 등을 증정한다. 또한 3월 한 달 간 신세계 포인트 카드 소지자에게 25% 할인과 함께, 아이 1명 결제 시 성인 1명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키자니아 홈페이지(www.kidzania.co.kr) 또는 콜센터(1544-51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원/동/정



이진섭(편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몽골 서부 지역인 헵드(Khovd)시에 있는 헵드대학 한국어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임기는 내년 8월까지.



서정훈(보도) 방송문화진흥회 초빙교수로 선정되어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신문방송학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문화론'과 'TV뉴스보도 제작'을 강의하고 있다. 임기는 2년.



정재순(기술) 2011년 3월부터 두원공대 방송영상미디어과 조교수로 재직하다가 금년 말 정년퇴임

하고 3월부터 초빙교수로 '방송 스튜디오 제작2' 과목을 강의중.



이우호(보도) 방송다큐, 웹 콘텐츠, 기업 홍보영상 등을 제작하는 '스토리풀' 대표로 취임했으며, 공연기획사와 공동으로 6~70대를 위한 공연 이벤트를 기획하여 전국 로드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성경환(ANN) 방송문화진흥회 초빙교수로 선정되어 원광대학교 교양교육대학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의를 주 2시간씩 강의하고 있다.



홍수선(보도) 방송문화진흥회 초빙교수로 선정되어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에서 '방송

취재 보도론' '매스컴 세미나' 두 과목을 주 3시간 강의하고 있다.



윤영관(편제) 방송문화진흥회 초빙교수로 선정되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산학협력 중점교수로서 '방송분석' 영상제작실습'을 주 2회 강의하고 있다.



정관웅(보도) 방송문화진흥회 초빙교수로 선정되어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 '취재보도론'을 주 3시간씩 강의하고 있다.



김정수(미주) LA에 있는 사우회 미주 모임에서 새 미주지회장에 선임됐다. 1982년 기술국 퇴직 후 LA타임워너 케

이블에서 30여 년간 근무했다.



이상범(관리) 3월 1일 CTS(기독교 TV) 대외협력본부장에 임명됐다. 2012년 자문위원으로 CTS에 입사하여 마케팅국장, 미디어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휴선(보도) 큰 아들 준성(44)씨의 가족이 지난 6일 미국 '오레곤주'로 이민을 떠났다. 이에 앞서 온 가족이 2박 3일간의 거제도 나들이를 했다.



사람 사는 이야기



박진석(기술)

월요일 아침, 시화호를 가로질러 시원하게 뻗은 제방을 달려 대부도 초입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로 출근하여 고객들과 주변 땅을 둘러보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새 금요일 저녁, 불그스름한 노을을 바라보며 다시 제방을 달려 집으로 돌아온다.

2009년 회사를 떠나 8년이 흘렀다. 그동안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송사에 휘말려 주변에 누를 끼치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지만 부족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자위한다.

5년 전, 틈틈이 공부하여 운 좋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는데, 한동안 장롱면허에 불과했다가 최근 대부도에 중개사무소를 갖게 됐다. 인천 송도에 살 때 건강도 챙길 겸 대부도에 조그

마한 텃밭을 가꾸느라 매주 한 두 번 들르곤 했는데, 대부도에서 토지개발사업과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70대 초반의 텃밭 주인이자 중개사무소 건물주가 때 마침 공식이 된 공인중개사를 구하게 되어 동업을 하게 된 것이다.

자격증만 있을 뿐 초보에 불과한 나는 오랜 경험과 다양한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건물주의 영업방식을 조금씩 배워 가며 토지개발과 부동산 중개업이란 생소한 직업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우리가 먹는 음식처럼, 땅도 적절한 재료와 숙련된 솜씨로 잘 요리하면 언뜻 보기에 쓸모없을 것 같은 물건이 기름지고 먹음직스런 물건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배워 가고 있다.

예컨대, 소금 생산을 중단하고 내버려 둔 염전이 흙을 메우고 개발허가를 받아 고부가가치의 유용한 철근 야적장으로 활용되는 것 같은 경우가 비로 그런 예가 될 것이다.

요즘은 불경기에도 국내외 정세가 불안하고 어수선하여 한가한 편이지만 이따금 찾아오는 고객들로 인해 땅의 가치와 용도에 대해 조금씩 안면을 터 가고 있는 셈이다. 수도권치고는 생각보다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탓인지 대부도에는 바다와 산을 벗 삼아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거나, 자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닷가 호젓한 숲 속에 많이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 말고도 오래전부터 대부도 섬마을에서 농업과 어업을 주업으로 하며 웅기종기 살아 온 시골사람들의 구수한 삶의 애환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한편의 휴먼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정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팔십 평생을 오로지 포도 농사에 전념하며 자식들 뒷바라지만 해 오다가 늘그막에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 한 촌로는, 몇 해 전 세상을 등진 부인을 생각하며 '맨날 고생만 시키고 제대로 호강 한번 못 시켜 준 게 마음에 걸린다'며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이 짝하

게 가슴에 와 닿는다.

좁은 시골길을 건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부인을 애통해 하며 매일 저녁 강술로 슬픔을 달래던 50대 초반의 한 농부는, 급기야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데 까맣게 타 들어가는 얼굴에 새겨진 굵은 주름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사소한 감정 다툼으로 인해 바닷가의 멋진 펜션으로 함께 개발할 수 있는 땅을 땀지로 놀리고 있는 어리석은 이웃들의 답답한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볼 때도 있다. 그 모두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귀중한 삶의 체험들일 것이다.

이제 날씨가 풀려 땅이 녹으면 슬슬 텃밭 농사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사무실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텃밭은 너무 넓어서 작년에는 한쪽 귀퉁이 스무 평 남짓한 땅에만 푸성귀와 수박, 참외 등을 심었었는데 금년에는 텃밭을 조금 더 넓혀 옥수수나 호박, 고추도 한번 심어 볼 생각이다.

호박 형의 귀천^{歸天}



김 종 길(편제)

2월 4일, 간암 말기로 투병 중이던 김성호 형이 임종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형은 영화진흥공사에 입사했다가 82년 11월 MBC 제작카메라 파트로 이직했기에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았다. 필자와는 대학과 직장 선, 후배 사이로 40년 가까이 함께 했으니 술한 추억을 공유한 사이이다. 미국 영화배우 ‘잭 패런스’를 닮았다 해서 대학동기들이 붙여준 ‘호박’이란 별명을 형은 본명보다 더 아끼고 좋아하며 살았다.

무용단 춤사위를 흉내 내다가 정강이뼈가 부러져 철심을 박기도 하고, 주기적인 요로결석, 통풍과 고혈압, 당뇨, 심장 스탠스 시술, 간암에 이르기까지 가히 종합병원 수준의 만신창이 신체를 가진 형은, 부산 출신으로 억센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자유분방한 영혼이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어서 후배들을 잘 챙기는 넉넉한 인심의 소유자였다.

게임(빠징꼬)과 골프를 즐겼고, 자칭 ‘양 장

구’라며 드럼도 곧잘 치는 로맨티스트. 그런가 하면 안식년 기간에 판 택시 운전기사 자격증을 보여주던 모습에서 그의 또 다른 면모를 읽을 수 있었다.

형은 그러나 카메라만 잡으면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해 매사에 완벽주의를 추구했다. 그는 타고난 카메라 감독이었고 무엇보다 카메라를 사랑하고 아꼈다. 그런 성호 형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직 출가도 시키지 못한 아들과 딸을 두고 먼 길을 떠나버린 것이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던 천상병 시인처럼 하늘나라로 갔다.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호박 형이여! 이제는 고통 없는 하늘나라 소풍을 맘껏 즐기세요.

그의 애창곡 ‘부초’처럼 우리는 물 위에 떠도는 꽃잎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전주가 끝날 무렵 비치된 소화기를 카메라인양 어깨에 맨 채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와 ‘부초’를 열창하던 호박 형 당신이 그립고 또 그리울 겁니다.

성호 형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서투르나마 시 한 편을 적어 저의 심정을 전할까 합니다.

친 구

커튼 치면 지워지는 풍광이 아니다
문 닫으면 볼 수 없는 빛이 아니다
바람으로 맺는 인연,
민들레 홀씨는 더욱 아니다
눈감아도 헤어져도 멀리 있어도
늘 그리운
그대 이름 벗이로세

위로하는 영혼이여
따사로운 온기로 가슴을 적시는
벗겨낼 수 없는 잊힐 리 없는
그대 이름 친구로세



사진(左) 김성호, 김종길
80년대 말 한국 방송사상 마이크로 웨이브 2단중계방식(강원도 함백산- 울릉도)으로 MBC가 울릉도 주민과 서울의 가족 크로스토키нг 현지 생방송을 최초로 성공했다. 울릉군청에서 중계방송요원들에게 제공한 행정선을 타고 선상에서 찍었던 사진.

사진(右) 제 5공화국시절 대구-광주를 잇는 88고속도로 기공식 중계방송 출장을 가기 위해 서울고속터미널에 집결한 카메라팀.
뒷줄 좌측부터 김성호, 박화진, 오진곤, 김종길, 앞줄 이영곤



MBC C&I는

드라마·교양·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에서부터 방송 중계·편집 등 방송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차별화된 방송 인프라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문화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핵심 주역이 되겠습니다.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최정숙(편제)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 공감이 되는 사진들 있으시죠? 사진 자체에 역사(히스토리)와 애깃거리(스토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른바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고 그동안 덮어뒀던 옛 앨범을 뒤적여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찾아낸 혼자만 보기 아까운 사진들을 같이 감상하시면 어떨까요.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1967년 9월 20일, 정동 신사옥 기공식 장면이다. 당시 창사 기념일에는 아나운서실과 총무국 여직원 몇 명이 한복을 차려입고 나와 행사 도우미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사진) 삼을 들고 흙을 옮기는 분



은 이수홍 신사옥 건립위원장(사우회 고문)이다. 솔직히 말해, 조중출 사장님 외에 다른 분들의 당시 직함이 무엇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택근 고문의 얼굴은 뚜렷하게 보이나, 다른 분들의 얼굴은 기억나지만 이름은 잘 모르겠다. ‘기공식장의 꽃(?)’이 되

어 사진 정면에 드러난 내 젊은 시절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지만 정답게 느껴진다. 김수근 씨가 설계하고 현대건설이 실비만 받고 지어 준 정동 사옥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브라운관을 상징하는 팔각형의 창문 디자인이 독특해서 화제가 됐고, 준공 후에는 ‘아름다운 건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관광호텔을 짓는다는 명분으로 장비를 통관했다던 비화는 언젠가 사우회보 ‘원로를 만나다’에서 읽은 기억이 난다. 창사 기념 공모전에서 상품을 받으러 온 시골 어르신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마주 한 깨끗한 복도에 주눅이 들어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걸었다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MBC 역사에 남는 기록 사진이기도 하다.



1977년, 라디오 제2부 김진희 차장이 일본으로 출장 갈 때 김포국제공항에 전송하러 나가서 찍은 것이다. ‘절망은 없다’라는 프로그램을 연출

하던 김 차장은 당시 일본에서 성공 사례로 이름이 높았던 재일동포 MK 택시 유봉식 사장을 취재하러 가는 길이었다. 지금처럼 해외 출장이 흔하던 시절이 아니어서, 동료 김성희 차장, 김정환 PD도 전송 대열에 합류했다. 당시에는 흔했던 일본제 코로나 승용차와 김진희 차장이 입고 있는 나팔바지, 어마무시하게 큰 여행용 가방, 김성희 차장의 넓은 넥타이 등등이 그 시대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 김 차장은 일본에서 돈 아낀다고 라면을 시켰는데 단무지가 단 두 쪽. 무심코 몇 번을 더 시켰더니 나중에 계산서가 식당 밥값보다 많게 나왔다는 속 쓰린 경험을 토로했다. 당시 해외 출장 가는 사람은 직원들에게서 촌지를 받고, 회사에 돌아올 때 작은 선물로 화답하는 미풍양속(?)도 있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미처 선물을 사지 못하면 서울에 오자마자 남대문 도깨비시장으로 직행하여 외제 물품을 적당히 구입해서 선물로 줬던 사실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또한 당시 일본을 다녀오는 사람들은 ‘코끼리밥통’ 한두 개는 들고 오는 것이 관례라고 할 만큼 일본의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가 컸다. 김진희 차장은 동경 아끼하바라에 들러 ‘코끼리밥통’ 대신 최신 소형 취재용 sony 녹음기와 마이크를 사왔다. 방송하는 사람의 눈에는 밥통이 아닌 녹음기가 더 눈에 띄게 마련이다. 요즘 같으면 그것도 용산 전자상가에서 다 해결될 텐데, 80이 된 요즘의 진희 언니를 보면 새삼 떠오르는 사진이다.



1978년 7월 8일, ‘전설따라 삼천리’ 4000회 (구석봉 극본, 고무송 연출 “금강산의 유점사”)를 기념하여 성우실에서 열린 자축 파티 사진이다. 왼쪽부터 성우 신충식, 서규석 상무, 나, 김진희 차장(조그맣게 보임), 김포천 부장, 故최정연 ANN, 故박종민 국장, 故이만우 기자, 작가 故민병훈, 드라마 타이핑을 함께 했던 김태희, 성우 故이영달 그리고 이환의 사장이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온다. 이때만 해도 담배를 꼬나 문 자세로 사진 찍는 것이 멋이라면 멋이었다. ‘전설따라 삼천리’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우리 것의 재발견’이라는 취지로 전국에 묻혀있는 전설을 취재하여 라디오만이 할 수 있는 음향효과를 심분 발휘한 제작으로 1965년에 시작해 전국의 청취자를 사로잡은 프로그램이다. 산신령, 용, 물고기, 개미, 지렁이 등을 연기해야 하는 성우들의 고충도 있었지만, 성우 故유기현 씨의 구수한 해설은 40대인 그를 노인으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했고,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갖췄고 다큐멘터리에 공포물적인 요소를 잘 섞은 ‘시대를 앞서 간 드라마’라는 평을 들었다. 1983년까지 20년 가까이 MBC라디오의 간판 프로그램으로 주 7회 방송되었으며 故차범석, 故민병훈, 故구석봉 작가와 김지현, 김진희, 김옥균, 고무송 PD 등이 만들었다.

아! 시간이 간다!



김 충 식(ANN)

겨울 방학이 시작 되려는 12월 중순, 강릉 K대학교. 소나무 숲이 아주 운치 있는 학교다. 강의가 시작되려면 아직 20분 이

상 여유가 있었다.

오늘은 이곳에서 교수들을 상대로 코칭 관련 4시간짜리 특강이 있는 날이다. 쌀쌀한 바깥 날씨와 다르게 유니버스텔 건물 8층 특강실. 실내 온도는 기분 좋게 난방이 되어 있었다. 스크린 쪽 조명을 약간 어둡게 조절했다. 햇빛이 들어오는 쪽의 커튼을 내리고 실내 조명을 맞췄다. 소음을 내지 않는 멋진 카펫이 깔린 바닥에는 잔잔하면서도 분위기 만점 기타음악을 안개처럼 깔아 놓았다.

이제 10분쯤 시간이 남아 있다. 하나 둘씩 교수들이 자리를 잡아 간다. 준비한 강의안의 PPT 영상도 깔끔하게 잘 보였고, 책상 배열도 미리 담당자와 연락한 대로 6명씩 5개조가 잘 정돈되어 있다. 배부 자료도 책상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이제 참가자들과 강의 전에 미리 '라포'를 쌓을 차례다.

강의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은 강사가 먼저 해야 한다. 자리를 잡는 교수들 앞으로 가서 명함을 건넨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강의할 김 충식입니다.”

“전에 MBC에 계시던 분 아니세요? 스키 중계 같이 갔었던 카메라 변영우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 이 학교 교수님이세요?”

“네, 선배님! 지난 3월부터 여기 영상학부 교수로 와 있습니다.”

후배 아나운서 아무개와 동기라면서 거침없이 선배라고 불렀다. 그는 SBS 개국 때 보도 부문 카메라 파트로 이동해 갔고, 거기 자회사를 책임 맡기도 했으며, 은퇴해서 지난 학기부터 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어 있었다.

그와 함께 기억하는 용평 스키장이 생각난다.

스키장은 북서쪽으로 햇볕이 들지 않는 방향에 만들어야 한다. 그 래야 햇볕에 눈이 녹지 않을 테니까. 중계석은 슬로프 끝자락 피니시라인 부근, 세찬 영하의 겨울 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치는 눈 바닥위에 테이블 하나 갖다 놓고 그 위에 'MBC 스포츠'라 쓰인 천을 덮으면 끝이다. 아나운서와 해설자, 그리고 옆에 오디오맨 석이 있을 뿐이다. 그냥 그 난장의 차가운 의자위에 앉는 것이다. 자꾸 찬바람이 휘몰아친다.

장갑을 두 개 껴지만 아까부터 땀 났다. 얼어 버린 손으로 겨우 붙잡고

있는 출선 선수 명단이 바람에 날려 온 눈가루로 덮여 버린다. 선수들 시간기록을 매번 적어야 하는데 종이는 바람에 휘날리고, 볼펜도 잘 써지지 않는다. 입도 열어서 발음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양말을 두 겹 겹쳐 신었는데도 발은 얼어 버린지 벌써 오래다. 몸이 계속 떨려온다. 스키장 측에서 안타까웠는지 보온병에 커피를 끓여 왔다. 주위를 녹이려고 뜨거운 커피를 마신다. 살 것 같다.

주위에 제대로 손발이 얼어 곱아졌지만, 내 몸은 완벽했다. 커피의 이노작용에 성실한 반응을 보였다. 아나운서들은 누구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생리적인 대비를 완벽하게 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그러나 지금은 생방송 중. 참고 참아야 한다. 다리가 저절로 안으로 꼬아진다. 겨우 참아내다 중간 CF가 나가는 사이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빨리 처리해야 한다. 주위 사람들이 방송 중에 일어서는 아나운서를 쳐다본다.

그러나 지금은 긴급 상황이다. 옆으로 간다. 처리할 장소를 찾는다. 없다. 주위에는 텅 빈 황량한 눈밭판. 나무 옆이라도 찾아야 한다. 슬로프에 나무가 있을 리 없다. 슬로프를 벗어나면 눈에 발이 빠진다. 걷기도 쉽지 않다. 한참을 벗어나 나무 뒤에 겨우 자리를 찾았다. 아!

시간이 간다!

바지 앞단의 단추를 풀 수 없다. 손이 추위에 곱아서 단추 하나 제대로 풀기가 어렵다. 엇그제 이태원에서 마련한 위아래가 통으로 연결된 멜빵이 있는 두꺼운 천바지다. 당시에는 지퍼가 일반화 되지 않았다. 어떻게 어떻게 첫 단추를 열었어도 속에 입은 신사복 바지 앞 단추를 또 풀어야 한다.

그 속에 내복을 지나 팬티까지 다 열어젖혔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더 문제다. 몸이 추워지면 모든 기관이 움츠러든다. 소변 배출의 외부 기관도 너무나 완벽하게 줄어들어서 곱은 손으로 잡아내기도 어렵다. 아! 시간이 간다! 겨우 옷 밖으로 노출을 시켰지만, '참아야 한다!'를 얼마나 명령했던가. 좀처럼 배출하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어떻게 배출은 시작했는데 그치지 않는 다. 아! 시간이 간다! 중계석을 슬쩍 쳐다본다. 빨리 오라고 급한 사인이 온다. 아직 더 남았는데...

그 때 마지막까지 다 처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잘라야 했던 후유증이 요즘 상황을 핑계대기 딱 좋은 나이가 되었다. 낯선 외지에서 강의하는 행복한 순간에다 옛 동료의 반가운 조우로 까맣게 잊었던 그 미적지근한 얘기를 털어 놓고 나니 이제는 후련한 기분이다.

한국인은 역시 밥심이 최고.



윤 영 레(업무)

안녕하세요, 윤영레입니다.

1998년, 광고국에서 퇴직하며 회사를 떠난 지 벌써 20여년이 돼가네요.

집에 온 뒤로 한동안은 애들과 씨름하며 지냈습니다. 애들 학업 뒷바라지 하라, 집안 살림 꾸리랴, 남편 내조 등 정신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는 내 가게를 갖는 꿈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침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봉구스 밥버거”를 알게 되었고, 광장동에는 그 브랜드 점포가 없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밥버거”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생

까지가 주 고객인데, 광장동은 학교와 학원, 그리고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라 창업 여건이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린 “밥버거 광장점”이 오픈한지 벌써 3년이 돼갑니다. 광장동에 “밥버거 광장점”을 개업할 때 바로 옆에 ‘버거킹 햄버거 광장점’ 역시 개업하여 나란히 가게 문을 마주하고 있어서 마음속으로는 크게 긴장도 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필 햄버거 가게 옆에 밥버거 가게라니....

그래!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데, 햄버거 옆에 밥버거면 어때리. ‘한번 해보자’는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개업 빨” 덕분인지, 첫날부터 손님이 줄을 서고 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주방실장님이 ‘이 동네 아주머니들은 밥도 안 해먹고 다들 사먹느냐’고 불평까지 했답니다.

우리 가게 밥버거가 맛있다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 있는 1,000 여개의 “봉구스 밥버거” 점포 중에서 저의 광장점이 상위 100대 점포로 선정되었고, 본사에서는 창업 희망자들에게 저의 가게를 견학코스로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광장동의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광장동에 살다가 전주로 이사간 어느 단골손님은 서울에 올 때마다 저희 가게를 꼭 들려 주시고, 군대 간 아들이 밥맛 좋은 광장동 밥버거를 먹고 싶어 한다며 면회 갈 때 마다 종류별로 한 보따리 사가는 고객도 있습니다.

이곳은 아차산이 가까이 있어서

휴일엔 등산객들이 하루 전에 몇 십 개씩 주문해 가기도 하고, 학교, 회사, 병원, 드라마 촬영팀, 교회 행사, 세미나가 있을 때는 단체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처음엔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날 밤을 새다시피 우왕좌왕하며 당황했었는데 3년차가 되니까 내공도 쌓이고 요령도 붙어서 조금씩 조금씩 고수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단체 주문 많이 하세요, 어디든지 달려 갈게요 ^^

행복하세요.



고향집



장영배(보도)

산발 머리 잡초들이
주검같은 적막(寂漠)속에
고향집을 지키고 서 있다

사랑채엔
앉은뱅이 책상이
먼지 속에 나뒹굴고
허물어진 꽃동산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웃고 있다

별뿔별 쏟아지는 한여름 밤
오순도순 둘러앉은 평상위의 가족들
꿈으로 설레이던 순박했던 그 시절

이젠
이승과 저승으로 하염없이 날아가고
맨드라미 채송화 핀 장독대 앞에
아롱아롱
어머니의 그림자가 웃고 서 있네

큰맘 먹고 오랜만에 찾은 고향집,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과 함께였다. 텅~빈 집엔 잡초들만
무성하고, 어머니가 “내 자식 잘 되기를” 주문치
럼 외우며 조석으로 닦아주던 장독대 앞에 서니
외락 밀려오는 그리움에 눈앞이 뿌옇고 가슴이
미어진다. 앙가슴 제치고 천방지축 내달리던 고
향 뚝방길은 저기 어디 쯤...

빈 하늘에 뜬 구름만 봐도 어찌 그리 좋은가,
고향집은.



자연을 벗삼은
영혼의 안식처

4월 한달동안 자연장지를
300만원 이상 분양받는
MBC사우회 회원들에게
32인치 TV셋트를 선물로
제공합니다.

MBC사우회원 이용시 특별한 혜택과 착한가격으로 파격적 대우!!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고요함

그리고 영혼의 평안함이 함께하는

중앙추모공원



잔디장



수목장



봉안당



고객상담전화 031-833-7737, 7738

주소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 313-1(마유로 58-38)

E-mail : cmp5838@naver.com / Fax : 031-835-7737